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 스쿨팜 ‘호응’

전북농협, 사업추진 우수사례 발표... 유재도 본부장 “특색 사업 지속 발굴할 것”

전북농협은 11일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종합경영분석회의에서 농협지자체협력사업 일환으로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사업(전라북도), 스쿨팜 사업(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에 대한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의 주제로 사업추진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종합경영분석회의는 김병원 농

협중앙회장과 임원, 부장, 지역본부장, 시군지부장이 참석해 개최된 회의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사업, 스쿨팜 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의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는 전북관내 농협 및 조공법인에 7개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갈 경우 차액의 90% 보전하는 제도로 농업인이 가격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스쿨팜 사업은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대다수 도시 초등학생들에게 학교 유휴 부지인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에 밭을 조성하고 주 1회 수업시간에 농사체험을 실시해 농업

가치를 전파하는 사업이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위 사업들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어린이들의 농업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사업들”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특색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사랑한가득 주먹밥 봉사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12일 익산시 인화동에 위치한 익산시에인종합복지관에서 소외계층 장애인 20여명을 초청해 '제15회 사랑한가득 주먹밥'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영 전북은행 부행장,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10여명이 참석하여 점심으로 제공될 주먹밥을 직접 만들고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식사 후

에는 기념품을 전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은행 이정영 부행장은 “임직원의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제공된 점심 식사를 통해 도민을 향한 전북은행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신규직원 239명 공개 채용

국민연금, 전년도 상반기 대비 70명 증가 인원 확정

국민연금공단은 12일 2018년 상반기 신규직원 239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공단은 정부의 일자리 나눔 정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공공기관 최초로 전직원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참여로 마련한 재원을 활용해 전년도 상반기 대비 70명이 증가한 인원을 확정했다.

또한 공단은 채용과정에서의 편견과 불합리한 차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및 NCS기반 직무능력 중심 채용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전의 지원 자격 요건인 공인외국어성적 기준점수를 올리는 폐지하되 우대 사항으로 조정하고 입사지원서에 학력, 출신지, 가

족관계, 사진, 출생연도 등을 제외하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정착한다.

공단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선발 후 신규직원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채용 일정은 4월 12일 일간지 및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지원서는 4월 23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필기시험은 5월 19일, 최종 합격자는 6월 22일에 발표한다.

한편, 올해부터 지원자들의 알 권리 보장 및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경쟁률, 서류전형 요소별 배점, 필기시험 커트라인 및 최종합격자 선발기준 등에 대해 공시할 예정이다.

/최수호 기자



롯데백 전주, 사랑과 정성의 자장면 나눔행사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롯데 봉사단원 15여명은 지난 2일 전주 청소년 직업 생활관 '사랑의 책 나눔' 봉사 활동에 이어 희망의 봄을 맞아 12일 송천동에 위치한 송천 정보 통신학교를 방문해 '사랑과 정성의 자장면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블레이크이를 맞아 100인분의 자장면과 밀반찬, 후식으로 계절과일 등을 제공하고 롯데백화점 박은호매

니저를 비롯해 자원봉사자 15여명이 참여해 환절기 건강하게 보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힘이 되어 되고자 준비했다.

조환섭 롯데백화점 전주점장은 “이번 계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다문화가정에 모국방문 항공권 전달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2일 경제적으로 어려움 친정을 방문하지 못하는 농촌 다문화가정 15가구를 롯데시네마로 초청해 모국방문 항공권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에는 고향주부모임과 농촌사랑봉사단 회원들이 하객으로 참여,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을 축하했다.

또한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영화 관람을 통해 교류와 소통의 소중한 시간도 가졌다.

이번 모국방문 대상지는 베트남(7가

정), 필리핀(3가정), 일본(3가정), 캄보디아(1가정), 네팔(1가정) 등 총 15가정 6명이 선정됐다.

아울러 대상자 중, 고창 해리면의 마자히사코(일본, 51세)씨는 7년만에 모국방문의 기회를 가졌고, 완주군 이서면의 부티구엔(베트남, 40세)씨는 베트남에 홀로 계신 아버님을 자주 못 뵈서 안타깝던 차에 모국방문 기회가 주어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최수호 기자

전북은행, 꿈드래장애인협회 합동결혼식 성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사)꿈드래장애인협회와 함께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웨딩홀에서 '전북은행과 함께 하는 제19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합동결혼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는 도내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행복한 삶에 대한 새로운 동기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사)꿈드래장애인협회 시·군지부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된 신랑신부 12쌍은 양복, 드레스, 한복, 예물, 신혼여행 비용 등을 지원받아 하객 400여명의 축하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강원도 일대도 2박 3일 신혼여행을 간다.

한편, 지난 19년 동안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된 합동결혼식을 통해 총 257쌍의 장애인이 결혼식을 치러 가정을 꾸렸다.

/최수호 기자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12일 지역본부에서 수출협의회 가입농협 조합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전북농협 수출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사업 결산 및 신규회원 가입 등 기본 안건 외에 '전라북도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시책'과 '농협 농식품 수출역신 종합대책'에 대한 강의를 전북도 및 농협경제지주 전문가를 초빙하여 들었다.

또한 역량강화와 수출확대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트럼프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분쟁, 중국과의 외교마찰, 일본의 엔저현상 등 어려운 여건 속에도 지속적으로 수출 확대에 노력하여 농산물 수출

3,500만불을 기폭제 달성,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선도적인 농업이 되자”고 당부했다.

수출협의회 방금원(남원원에농협 조합장)회장은 “전북 농산물 수출 목표인 3,500만불을 달성하는데 전라북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전북농협 수출협의회가 농산물 수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배, 파프리카, 화훼류, 밤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 외에 토마토, 메론, 양파, 사과 등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 일본, 대만, 홍콩 등 주요 국가에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수호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